

한·일 주거 공간에서의 거주요소와 그 이용 상황

Residential Factors and Use Conditions in the Living Spaces of South Korea and Japan

박지연*
Park, Ji-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for appropriate territorial adjustment within the family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 to family members and how 'territorial dislocations' caused by differences in personal space and behavioral domains are used and controlled as living elem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data could be obtained. 1. General usage conditions of living elements. When the order of usage conditions of living elements is reviewed, the living elements interspersed at the personal space and behavioral territory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show a high usage rate, and in the case where living elements are shared with other families, many living elements are controlled by each family. Also, for living elements with a high possibility of sharing, a high consciousness for public usage is shown rather than elements controlling the territory, and the usage rate as territory controlling living elements is not high. 2. Compared to Japan, in Korea elements that can be placed at a certain location are often used as elements that resolve 'territorial dislocation', using furniture rather than objects. On the other hand, in Japan 'territorial dislocation' is often resolved by establishing a personal territory within the living space. Lastly, compared to Japan, in Korea 'territorial dislocation' is often resolved by maintaining a personal territory spatially rather than territorially.

Keywords : Korean House, Japanese House, Residential Factor, Lifestyle

주요어 : 한국 주거, 일본 주거, 거주 요소, 생활방식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사람들은 누군가와 주거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최근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양화되어가고 있다.¹⁾ 가족구성이 다양화되어 나타나는 생활방식의 변화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 가족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거생활 조사를 통해서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출하여 이 요소로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차에 의한 「영역의 어긋남」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족 간의 적절한 영역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영역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거주형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영역 면에서 본 주거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거(혈연, 비혈연과 무관하게 누군가와 함께 주거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의 형태가 앞서 변화한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변화를 인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생활방식조사」를 통해 자신의 공간, 행동 영역의 차에 의한 「영역의 어긋남」을 어떠한 거주요소를 이용해 조절하고 있으며 각 거주요소의 이용 정도(이용률)를 파악한다.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 파악방법은 아래와 같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한국의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건축학과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조사는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수업 중에 워크샵 형식을 통한 조사로 첫 수업에서 자신의 집의 도면을 준비해 오도록 부탁해 다음 수업에서 분석표를 기준으로 분석표의 기입법, 조사의 의미 등을 강의하면서 분석표 기입을 진행했다.

1) 거주요소의 의미

거주요소란,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 예를 들면, 생활공간이나 주거의 공간을 시작으로 작게는 몸 주변의 가구나 가전까지 삶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한다. 일상 생활은 거주요소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모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리, 공학박사

든 사람이 같은 거주요소의 구성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이 요소들은 다른 구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요소들의 구성의 차이, 즉, 거주요소의 조절 방법에 따라 거주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주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거주요소를 실제의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작업이다

II. 선행연구의 흐름

1. 일본에서의 환경행동연구^{2),3)}

환경행동연구는 일본 건축계획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도 주거에서의 행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연구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일본의 환경행동연구를 소개한 참고문헌을 인용해 그 정의와 동향에 대해 본 연구와 연관된 일부를 기재한다. 일본어의 「환경행동연구」는 영어의 Environment Behavior Studies를 「환경행동연구」로 직역한 후나코시 쿠니오(舟越國男)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제창되었다. 「환경행동연구」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환경심리학」, 「인간-환경계」, 「인간환경학」 등이 있으며,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때로는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통용되었던 Architectural Psychology에서 유래한 「건축심리」도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과로서 고유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인간환경심리학회」가 설립되었다. 1930년대 후반 무렵부터 전개된 니시야마 우조우(西山卯三)에 의한 서민주택에 관한 일련의 방대한 연구는, 그 방법론의 확립, 실태조사의 축적, 계획안의 제시 등 각 측면에 있어, 그 후 일본 건축계획학의 기초를 쌓아올려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대 환경행동연구의 시점에서 보아도, 이하의 점에서 그의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 우선, 건축 연구자 및 건축가가 완수해야 할 윤리적 책무로서 저소득 시민 계급의 열악한 주택사정을 사회주택문제로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호소와 함께, 이것들을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거 현장에서의 실태 관찰, 설문조사, 행동 매핑 등을 통해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주거 공간 사이의 모순을 해명하고, 요구, 생활양식, 잠재적 주 의식의 발전방향을 논하였다. 특히, 사람들의 생활과 거주자와의 관계에 관한 「생활방식조사」라고 불리는 이 실증적 연구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요시타케 야스미(吉武泰水) 등에 의해, 「건축공간과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법칙적인 관계성을 찾아내고, 모순법을 파악한다」, 「사용되는 방법연구」라고 칭해지는 일련의 연구에 계승 발전되었다. 주된 연구과제로는 [이동]을 주제로, 피난, 선택, 탐색 등에 대해, [환경의 파악]을 주제로 경관, 이미지, 인지 지각, 해방감, 압박감, 분위기 등에 대해, [환경에 대한 의미 부여]를 주제로 영역, 장소, [있고싶은 장

소, 있을 수 있는 장소], 이카타 등에 대해, [환경의 사회성]을 주제로 마을 만들기, 근린, 교류에 대해, [사람의 개성]을 주제로 고령자, 인지증 고령자, 치매성 고령자, 장애자, 장애아, 아동, 어린이에 대해, [기초적 개념]을 주제로 행동, 심리, 생태, 생태학, 가치관 등이 있다.

2. 가족을 위한 주거론

시노하라사토코(篠原聡子)들(2002)은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⁴⁾에서 가족형태와 그것에 대응하는 주거의 변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가족 형태별로 주택의 실례를 들어 설명해 주거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 지를 현실에서 검증하면서 새로운 가족과 주거의 관계를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도 위에 기술한 문헌과 동일하게 가족을 혈연에 국한하지 않고 비혈연이어도 동거함으로써 [가족]으로 생각하기로 한다.

3. 주거의 거주요소에 의한 연구

이이다에이코(飯田詠子), 후지타미나카(藤田みなか), 하츠미미나부(初見學)(2006)는, 「シェア居住から見る都市居住の在り方 その1, 2」⁵⁾에서 주택 행태의 변화속에서 세어거주가 크게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해 거주방식 조사를 통해서 세어거주자의 거주 방법을 밝혔다. 또한 공용 공간에 있어서의 가구나 물건의 소유, 사용법을 이용해서 분석해 동거자간의 관계를 명명했다.

이렇듯이 주택론에서 본 가족의 중요성, 또한 가족론의 시점에서 본 주택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족과 주거의 변화에 대해서, 또한, 동거 할 때의 공용공간의 이용,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구, 본인 소유의 물건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와 가족을 동시에 본 시점에서의 연구 더욱이 그들을 영역이라는 시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적으며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입한 연구도 적다.

본 연구에서는 동거를 형성하는 각 요소의 관계나 동거자와의 관계에 의해 그 요소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영역조절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4. 거주 형태의 영역론적 연구

코바야시(小林,1988)들은 「領域論による公私文化の研究に向けての方法の検討」에서 영역의 이론과 방법에 의해 거주 형태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고 장소의 점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 정무용 · 안경환 · 민병호 · 최윤경 · 이경훈 (2009). 건축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운당.

3) 花里俊廣 · 西出和彦 (1998). 人間環境學-よりよい環境デザインへ. 日本建築學會 編.

4) 篠原聡子 · 大橋壽美子 · 小泉雅生 (2002).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 <自在家族>のための住まい論, ライフスタイル研究會 編著.

5) 飯田詠子 · 藤田みなか · 初見學 (2006). シェア居住から見る都市居住の在り方 その1, 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이렇듯이 가족과 주거의 변화에 대해 장소의 점유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주거와 가족을 동시에 본 시점에서의 연구,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를 접목시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III. 거주요소에 대한 사전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1. 사전조사의 개요, 분석방법 및 결과

본 절에서는 실제의 동거생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동거 시 거주자가 느끼는 「영역의 어긋남」⁶⁾을 어떤 거주요소를 통해 조절하고 있는 지 파악한다.

사전 조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2007년 8월에서 2009년 3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는 방문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주택을 방문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일본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터뷰 형식(방문은 불가능했으나 조사 대상자와의 대화와 설문지를 통해 파악)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실제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음으로써 동거생활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사전 조사는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거주요소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영역의 어긋남」을 느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거주요소의 종류를 파악했다. 사전 조사는 주택 방문,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자의 삶을 세밀히 파악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은 주택 방문이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동거생활의 실화나 설문조사,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세밀하게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고 있는 대상자 모두가 「거주요소」를 통해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2. 주택조사로부터 파악한 거주요소

1) 거주방식(주택 공간 사용법)

주택의 공간, 즉, 거실, 침실 등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의 사용법은 거주형태에 의해 변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인원수나 성별에 의해 변한다던지 가족구성

6) 「영역의 어긋남」이란 각주 3)에 근거해 동거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는 「자신의 공간-퍼스널스페이스를 포함해 자신의 영역이라 느끼는 공간(몸의 주변일 수도 있고 인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곳일 수도 있고, 행동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행동영역-실제로 행동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의 어긋남, 차이를 의미한다. 「영역의 어긋남」은 「불편함, 좁음」과 같은 불쾌한 감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영역의 어긋남」은 사람 간의 접촉, 가족 교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에게 있어 「영역의 어긋남」은 완전히 해소하고 싶은 요소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레벨의 「영역의 어긋남」인지, 원하지 않은 레벨의 「영역의 어긋남」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 「영역의 어긋남」 인식 조사 개요

구분	한국주택조사	일본주택조사
조사대상	1차: 아파트 한 동 중 10세대의 주부가 대담 2차: 일본에 있는 한국인유학생의 한국집-학생이 대담	1,2,3차: 일본의 주택-일본 학생이 대담
조사일	1차: 2007년8월 2차: 2007년10월~12월	1차: 2007년10월~12월 2차: 2008년1월~9월 3차: 2008년10월~2009년3월
조사내용	· 지금 주택의 넓이에 대한 만족도 및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경우의 유무 · 「영역의 어긋남」을 느낄 때의 조절법 · 생활 전반에 대하여	

표 2. 질문의 내용 및 목적

순서	질문 내용	목적
1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가족간의 영역이 겹쳐 「영역의 어긋남」 느낄 가능성의 유무 검토
2	지금 주거의 넓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거의 넓이에 만족하던 안하던 간에 「영역의 어긋남」이 있는지 검토
3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있습니까?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설명 없이 어떤 식으로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고 있는 지, 인식의 정도 검토
4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는 일과 그 예를 들어주세요. (「영역의 어긋남」에 대한 설명 후)	「영역의 어긋남」에 관한 정확한 인식 정도를 알기위해 「영역의 어긋남」에 대해 설명하고 「영역의 어긋남」에 대해 이해시킨 후 인식의 정도를 확인해 어떠한 경우에 느끼는 지를 검토

원의 관계에 의해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택 공간의 사용법을 보는 것은 어떠한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주택 공간의 요소로는 화장실, 현관, 부엌, 거실, 침실, 욕실, 드레스 룸, 발코니, 다이닝 룸, PC실, 서재, 공부방, 어린이방 등이 있다.

2) 생활시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은 모두 자신의 생활이 있으며 그 생활에 따라 같이 있는 시간도 있고 따로 생활을 하는 시간도 있다.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은 대체적으로 생활시간이 많이 겹쳐도 부담을 덜 느끼지만 타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지만 원래부터 그다지 교류가 없었다면 생활시간의 겹침이 길수록 고통스러워진다. 따라서 생활시간은 어떠한 거주형태인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한다.

생활시간의 요소로는 식사시간, 식사 준비시간, 외출시간, 외출 준비시간, 청소 시간, TV시청시간, PC이용시간, 취미생활 시간, 입욕시간, 취침시간 등이 있다.

3) 생활 방식

모든 가정은 각각의 생활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세탁을 같이 하는지 아닌지, 목욕탕의 물을 같이 쓰는지 아닌지 등이다. 이 요소는 동거자 간의 친밀도나 신뢰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방식은 거주요소가 된다.

생활 방식의 요소로는 식사 준비를 한꺼번에 하는지 각자 하는지, 식사를 같이 하는 지 따로 하는지, 청소를 같

이 하는 지 따로 하는 지, 설거지를 모아서 하는지 따로 하는지, 세탁을 한꺼번에 하는 지 따로 하는지, 식재료를 모아서 사는 지 따로 사는 지, 차를 한꺼번에 끓이는 지 따로 끓이는지, 방을 공용하는 지 아닌 지, 식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지 아닌 지, 자신의 방에 다른 가족이 들어오는 것이 싫은 지 싫지 않은지, 열쇠가 공용인지 아닌지, 양이 많은 음식을 덜어 먹는지 덜어 먹지 않는지, 냄비요리를 덜어 먹는 지 덜지 않고 먹는지, 냉장고를 어떤 식으로 나눠 쓰는지 등이 있다.

4) 생활 행위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생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취침, 식사,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생활 행위는 동거자와의 관계에 따라 같이 하는 행위와 혼자서 하는 행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사이가 좋은 경우 식사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친밀한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활 행위가 따로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활 행위도 하나의 요소가 된다.

생활 행위의 요소로는 먹다, 교류하다, TV시청을 하다, PC를 이용하다, 작업을 하다, 취미 활동을 하다, 숙제를 하다, 입욕하다, 자다 등이 있다.

5) 가구배치

가구배치는 생활 행위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생활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가구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가구배치는 거주형태별 동거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성, 즉 상대에게 자신의 생활영역, 생활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노출 가능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 또한 상대와 어느 정도의 물건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가구배치의 요소로는 식탁, 세탁기, 소파, TV, 냉장고, PC, 옷 이외의 수납, 옷 수납, 책장, 책상, 침대 등이 있다.

6) 「컨트롤 가구」

공용공간에 놓여있는 가구여도 자신이 선택해서 구입했다던지, 자신이 많이 사용한다던지 하면 (가구에 대해 소유권,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구가 놓여있는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가구의 소유권, 주도권은 생활요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7) 「애착가구」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그 가구가 놓여있는 공간이 전용공간이어도 공용공간이어도 그 가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장소에 있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8) 「장소만들기」

가구나 물건을 이동시켜 사용하는 것은 장소를 만들어 내어 주택공간의 「영역의 어긋남」을 조절하는 요소로서 이용되고 있다.

9) 「물건의 전용, 공용」

주거 공간에는 다양한 생활용품, 가전 등이 있어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거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물건의 사용법이 변화한다. 예를 들면

동거자와 친한 경우 공용하는 물건이 많고 개인의 물건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거자와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전용의 물건이 많다. 따라서 물건의 전용, 공용을 통해서 거주형태를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IV.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 파악

1.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 파악에 대한 정의 및 의의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 파악이란 조사 대상으로부터 거주요소를 이끌어내어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영역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요소를 추출해 분석함으로써 거주형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영역의 조절에 의해 [있고 싶은 장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영역 면에서 본 거주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 파악에 대한 조사개요와 분석방법

한국에서의 조사는 한국의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건축학과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조사는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도면을 바탕으로 주거 형식, 거구와 자신의 공간, 공용, 전용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영역의 어긋남을 보완하고 거주요소를 추출해서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을 이끌어 낸다.

표 3. 조사 개요

조사대상	일본 동경대학 건축학과 학생 61명	한국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 대학원생 52명
조사일	2009년 4월 16일	2010년 3월 20일
조사항목	• 주택이용법 • 가구와 자신의 공간 • 자신의 공간 • 생활시간에 관한 질문 · 생활방식 • 공용, 전용	

3. 조사 결과

추출한 거주요소를 엑셀 상에 나열해 그 요소가 영역을 조절하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을 입력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입력해, 각각 통계를 냈다. 예를 들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유무, 물건의 전용, 공용의 유무 등 일상 생활 속에서 그 거주요소를 인식해 영역 조절 요소로써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것은 그 거주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지 아닌지에 따라 영역의 조절에 어느 요소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파악, 거주요소의 순서를 추출하는 것이다.

1)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

일본의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의 순서를 보면 「물건의 전용, 공용」, 생활시간, 「컨트롤 가구」, 「애착가구」, 「장소만들기」 등 공용, 전용공간에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을

표 4. 분석표의 내용

질문내용	질문의 목적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혼자 있을 때를 상상하며 대답해주세요.	
① 혼자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질문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질문
② 혼자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장소와 자세를 기입해주세요.	상황을 상상하기 쉽게 한다.
③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평면도상에 표시해주세요(영역의 범위를 등을 이용해 표시해주세요.).	도면에 마킹을 함으로써 인식적인 자신의 공간의 범위를 안다.
④ 혼자있을 때 실제 자신이 행위를 하는 장소를 평면도상에 표시해주세요(영역의 범위를 등을 이용해 표시해주세요.).	도면에 마킹을 함으로써 실제의 자신의 공간의 범위를 안다.
⑤ 주거에서 여기만큼은 침입당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장소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택 속에서 특히 자신의 영역성이 높은 부분을 알게 된다. 그 공간과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과의 겹침도 파악해 주택에서 가장 「영역의 어긋남」을 낮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알게 된다.
⑥⑤의 장소에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영역성이 높은 장소의 상황 파악.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공간>: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를 상상하며 답해주세요.	
① 가족 혹은 동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은 있습니까?	질문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질문
②①의 경우,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장소, 자세 등을 기입해주세요.	상황을 상상하기 쉽게 한다.
③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 실제 가족이 행위하는 장소를 도면상에 기입해주세요(영역의 범위를 등을 이용해 표시해주세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가족의 인식적인 공간의 범위를 도면에 마킹함으로써 알게 된다.
④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 가족 각자의 공간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도면상에 기입하세요(영역의 범위를 등을 이용해 표시해주세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가족의 실제적인 공간의 범위를 도면에 마킹함으로써 알게 된다.
⑤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에도 주거에서 여기만큼은 침입당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장소는 있습니까?	주거에서 특히 자신의 영역성이 높은 부분을 알게 된다. 또한 이 공간과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과의 겹침도 파악해 주거에서 가장 「영역의 어긋남」의 레벨을 낮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알게 된다.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의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공간은 혼자 있을 때의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공간보다 영역성이 높다.
⑥⑤의 장소에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상황 파악.

점재할 수 있는 거주요소의 이용이 높으며, 식탁의 자리, 냉장기의 분할 이용, 공용 공간에 있는 물건의 소유 등 다른 가족과 공용하는 경우도 많은 거주요소에 대해서는 가족 별로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 공용하는 방, 두 명이상 같이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 열쇠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 등 공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주요소는 영역을 조절하는 거주요소로서는 그다지 이용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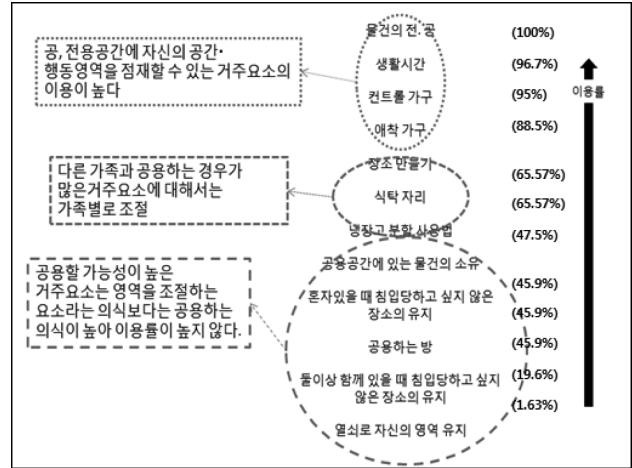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거주요소 이용 상황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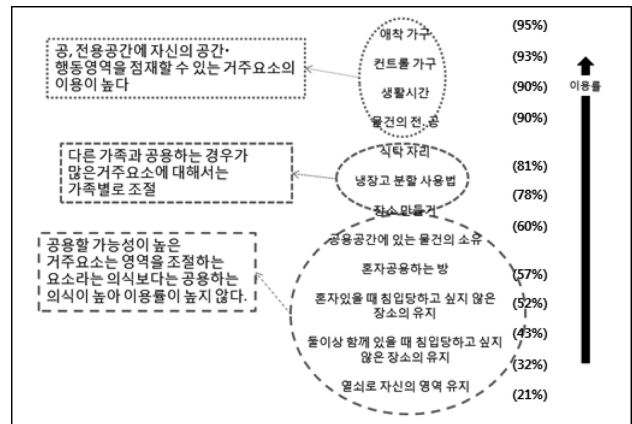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거주요소 이용 상황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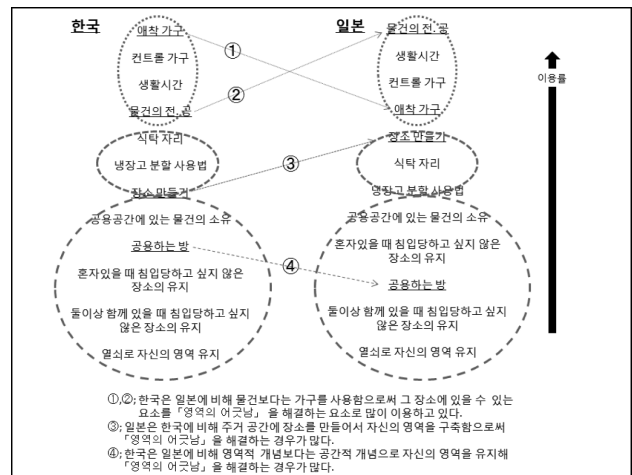


그림 3. 한국, 일본의 거주요소 이용 상황 순서 비교

2)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
거주요소 이용 상황 순서의 경향은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다<그림 2>.

3) 한국, 일본 조사 결과 비교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물건보다는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영역의 어긋남」을 해

결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주거 공간에 장소를 만들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본인의 방에 있는 침대, 책상 등에 애착을 보이며 그러한 가구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거실에 본인 방의 의자를 가져와 거실에 자신의 영역을 만듦으로써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영역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해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4. 거주요소의 경향

1) 「물건의 전용, 공용」

「물건의 전용, 공용」에서는 140개의 물건에 대해 해당되는 물건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혹은 누군가가 일부 전용, 혹은 일부 공용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일본, 한국 모두가 「물건의 전용, 공용」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물건의 이름에 있어서는 한, 일 양쪽의 모두를 통합해 표기했다.).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물 컵, 머그컵, 술잔, 포크, 테이블, 냅킨, 책상, 스푼, 테이블 냅킨, 침대, 옷장, 옷 수납, 샤워타올, 구두, 침대 시트, 베개, 인형, 전기담요, 타월 켓, 헤어 왁스, 모자, 핸드백, 스타킹, 양말, 냅킨, 손수건, 입행구는 컵, 헤어핀, 열쇠, 샤워캡, 속옷, 타올, 집에서 입는 옷, 전기 칫솔, 옷, 화장품, 악세사리, 면도칼, 칫솔, 이불

위에 표기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젓가락, 물컵, 머그컵, 속옷, 칫솔, 침대 등은 대부분 전용이며 공용인 예는 없었다. 그러나 의외로 타올이나 샤워타올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예가 다소 있어 대체적으로 가족 동거의 경우였으나 세어의 경우에도 친구와의 세어, 선배와의 세어 등에 공용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물건에 대한 전용성이 강해 “누구의 무엇(예를 들어, 아버지의 젓가락 등)”과 같은 식으로 소유자가 정해져있어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가족이 공유하는 예를 볼 수 있었다.(예를 들어 손님이 왔을 시 그릇 등이 부족할 경우, 가족끼리는 공유하기도 한다.)

접시, 티포트, 버터케이스, 음료수 병, 보관용 용기, 칼, 냄비, 후라이팬, 앞치마, 슈거포트, 잼 병, 티스푼, 도마, 행주, 국자, 비닐 장갑, 조미료 통, 세탁기, 밥솥, 다리미, 토스터, 커피 밀, PC, 냉장고, 탈수기, TV, 드라이기, 세트기, 청소기, 오디오, 커피포트, 과일, 조리한 음식, 조미료, 밑반찬, 김치, 술, 식재료, 옷 이외의 수납, 찻장, 음료수, 책장, 식기 수납, 음식 수납, 구두, 장식장, 이불장, 전신 거울, 세탁망, 세탁물 용기, 재떨이, 쓰레기통, 치약, 입욕제, 약, 쿠션, 만화책, 세수대야, 유탄포, 물베개, 텐키안카,

삼푸, 린스, 샤워젤, 부츠 고정기, 구두 솔, 구두 주걱, 자동차, 자전거, 목욕 물, 자명종 시계, 빗자루, CD, 잡지, 요리책, 걸레, 여행 가방, 다림질 대, 가위, 먼지털이, 쓰레받이, 우산, 책, 세제

위의 물건은 전용하고 있는 예도 공용하는 예도 반반 정도의 비율이었다. 이 물건들에 관해서는 동거자간의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물건까지 전용으로 이용하는 지가 정해져 동거자 간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의한 전용도 있었다.

일본의 예에 있어서 특징이 보인 것은 과일, 술, 입욕제, 삼푸, 린스, 여행 가방 등이었다.

과일, 술은 가족이어도 취미나 취향이 다르므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사와서 전용으로 하고 있는 예가 다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 부인이 한꺼번에 장을 보는 경우에는 미리 주문해서 어머니, 부인이 사온 물건 중에서 자신이 주문한 것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예도 볼 수 있었다. 입욕제, 삼푸, 린스에 대해서는 가족 공용의 것을 어머니, 부인이 구입하고 자신에게 취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온 것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어머니, 부인이 사올 때에 주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행 가방은 의외로 전용으로 하고 있는 예가 많이 보였으며 그 이유로 대체적으로 여행 가방을 수납 대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행 가방에 열쇠를 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의 물건을 넣어서 수납대신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가방을 공용공간에 놓아도 전용공간에 놓아도 「자신의 물건」이라는 인식을 주어 일상 속에 부족한 영역을 넓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한국의 경우 PC, TV, 옷 이외의 수납에서 특징이 보였다. PC, TV는 자신 전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예도 다소 있었으며, PC, TV는 그 이용자의 [있고 싶은 장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옷 이외의 수납은 「옷의 수납」과 비교하면 공용인 예도 많고 공용이어도 「영역의 어긋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찬 접시, 주전자, 테이블 클로스, 쟁반, 밥주걱, 전자렌지, 오븐 가스렌지, 코타츠, 식탁, 벽시계, 액자, 꽃병

위에 기입한 물건은 일본, 한국 양국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가 공용이었다.

이 물건들은 식사시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용공간에 놓여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용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생활시간

특징으로 취미활동의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예가 많고 짧은 시간이어도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일상생활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다. 생활시간을 조절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예를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 순간적인 자유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간과 무관하게 여유있는 시간에 각자의 방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누리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가족과 교류하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갖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어머니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낮시간을 이용해 거실 쇼파나 부엌 식탁에서, 아버지는 저녁 시간에 서재에서, 아이들은 방과 후 시간에 본인의 방에서 본인만의 시간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3) 「컨트롤 가구」의 유무

가구가 각자의 방에 확보되어 있는 예에서는 자신의 방의 물건은 자신에게 소유권, 주도권이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 외에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소수의 주도권, 소유권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주도권, 소유권이 복잡하게 교차한다든지, 전부 공용이 되어 있는 등 다양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방에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한국의 경우 본인 방의 가구와 함께 일부 공용 공간의 가구가 해당되는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었다.

4) 「애착가구」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존재는 그 외의 자신 전용의 물건보다 [있고 싶은 장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에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존재는 그 가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장소에 오래 있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본인의 방에 있는 책상, 의자, 거실에 있는 피아노 등이 애착가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본인이 방에 있는 침대, 공용공간에 있는 쇼파를 애착가구로 인식하고 경우가 많았다.

5) 「장소 만들기」

「장소만들기」의 카테고리는 일상적인 이동, 계절에 의한 이동, 행사가 있을 시의 이동, 장소가 좁음에 의한 이동, 아이들의 성장에 의한 이동 등이 있다. 조사의 결과로서는 「일상적인 이동」과 「계절에 의한 이동」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일상적인 이동」에는 의자, 이불, 시트 등으로 장소를 만들어 그 장소를 일시적인 [있고 싶은 장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삼고 있었다. 또한 「계절에 의한 이동」에서는 코타츠나 선풍기 등의 이동이 많이 보여, 코타츠에 의한 다른 계절과는 다른 「장소 만들기」, 선풍기에 의한 자신의 [있고 싶은 장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가구의 이동으로 쾌적하게 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계절에 의한 이동」이 대다수였으며 「일상적인 이동」의 경우는 주로 이불, 의자가 이에 해당됐다.

한국의 경우 「일상적인 이동」의 경우, 이불, 의자, 시트가 많았다. 특히 시트의 경우 김치를 담거나, 제사시에 이동하면서 넓게 펼쳐놓고 일할 때 많이 쓰였다. 「계절에 의한 이동」의 경우, 여름에 선풍기, 겨울에 히터 등 쾌적한 삶을 위한 가전의 이동이 잦았다.

6) 식탁의 자리

식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정해져있다고 답한 예가 많았으나 3명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또한 2명은 경우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 예는 평소에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단신부임하고 있는 아버지가 집에 오거나 조부모가 일시 체재할 때에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식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식탁은 공용의 것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소유권, 주도권이 있어도 식탁에 자신의 장소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식탁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명일 경우에도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자신의 공간, 자신이 실제 행동을 하는 공간이 되어 있어 공용공간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긴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식탁의 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자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는 아버지 혹은 조부, 즉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의 자리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7) 냉장고의 분할 이용

냉장고의 분할 이용이란 냉장고 속의 영역의식으로부터 생기는 정치학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냉장고를 이용하고 있으나 그 이용을 어포던스의 시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가정의 거버넌스가 보인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식재를 사오고, 냉장고 속도 부모의 영역이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아이는 부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해가면 자신 취향의 먹을 것을 사와 냉장고의 한 곳에 놓음으로써 냉장고 속에서의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부모의 지배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냉장고의 분할 사용은 집에서의 주도권을 파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머니에게 주도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아버지나 조부모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예도 보였다. 그러나 펠트병의 음료수나 과일, 술에 대해서는 가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사오는 예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세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냉장고를 각각 한 대 가지고 있거나 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칸을 나눠서 사용하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경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어머니가 사오는 대로 생활을 하며 가끔 아이들의 요구대로 물건을 구입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물건을 사와 냉장고 내의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연령대와는 무관하게 대부분 어머니가 구매를 하며 아이들의 부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누구의 것이라고 정해 구입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각자의 영역을 냉장고 안에 만들어가고 있었다.

8) 공용공간에 있는 물건의 소유

대체적인 경우가 어머니, 아버지 등 그 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소유, 혹은, 전부 공용이라는 답이 많았으나 그 중 대부분이 누군가 한명의 소유여도 전부 공용이어도 공용공간에 놓여있는 물건의 몇 가지는 다른 누군가의 물건이라고 답했다.

이 결과를 보면 공용공간에도 「누군가의 전용 물건」이 놓여있으며 「누군가의 전용 물건」은 그 당사자가 그 공간에 있는 것을 편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전용 물건」이 놓여있는 경우 그 사람의 「자신의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의 역할이 컸다.

일본의 경우 공용공간에 어머니의 전용물건이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어머니가 공용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전용물건도 많았지만 쇼파주변에는 아버지의 물건, 아이들의 물건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9)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는 가장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장소이며 「자신의 공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건이 놓여있는 장이나 수납 등도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주택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공유해도 가족이므로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예도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세어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을 통해서 동거자의 성격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정도가 달라지는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자신의 공간, 수납 공간 모두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경향이 강했으며, 한국의 경우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는 경향은 강하나 수납 등은 일부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10) 공용하는 방

「공용하는 방」이란 거실, 다이닝, 부엌 등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공용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 이외의 공간 즉, 누군가의 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이지만 어떤 이유로 공유하고 있는 방이나 남아 있는 방을 공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적인 예는 누군가의 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무엇인가의 이유로 공용하고 있는 예가 많았다. 그 이유 중에서도 많았던 것은 그 방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많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은 방을 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의 방」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모두의 물건이 분포되어 있거나 「모두의 방」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다양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공용하는 방을 수납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는 수납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으나, 군대 간 아들의 방을 어머니가 서재로 사용하는 등의 예도 볼 수 있었다.

11) 두 명이상 함께 있을 때에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와 같으나 「두 명이상 같이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가 「혼자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의 유지」에 비해 적은 것은 부모와의 동거인 예의 다수가 두 명 이상 같이 있을 때 침입당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어인 경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일본, 한국 양쪽 모두 자신의 방, 수납 등이 이러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12) 열쇠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

부모와의 동거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현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며 자전거나 자동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를 다수 볼 수 있었다. 세어인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현관의 열쇠나 자전거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방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예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주거가 넓어서 자신의 방이나 방 안에 있는 수납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13) 거주요소의 이용률 비교

거주요소 이용률의 순서와는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각 거주요소의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물건의 전용, 공용», 생활시간, 「컨트롤가구의 유무», 「애착가구», 「장소만 들기」 등 물건의 점재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거주요소에 있어서는 일본의 이용률이 높으며, 식탁의 자리, 냉장고의 분할 이용, 공용하는 방 등 공간을 차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주요소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용률이 높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가족 간의 적절한 영역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거주요소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거주요소 분석을 통한 이용 상황을 보면 공용, 전용 공간에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을 점재할 수 있는 거주요소의 이용률이 높다. 또한 다른 가족과 공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주요소는 각 가족 구성원 별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공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주요소에 대해서는 영역을 조절하는 거주요소로서의 이용률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은 일본에 비해 물건보다는 가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

에 비해 주거 공간에 장소를 만들어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영역적 개념보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자신의 영역을 유지해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두 나라의 「영역의 어긋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보인다.

3. 본 연구에서는 동거의 형태가 앞서 변화한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의 변화를 인식하였으며,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자신의 공간, 행동영역의 차에 의한 「영역의 어긋남」을 거주요소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조절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족 간의 적절한 영역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관계를 고려한 분석이 결여되어있어 실제적으로 영역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이 연구의 한계로 보고 추후 고찰할 사항으로 남기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정무용·안경환·민병호·최윤경·이경훈 (2009). 건축 디자인과 인간행태. 서울: 문운당.
2. 一番ヶ瀬康子·岸本幸臣·鈴木 晃 (1996). 家族と住居. 東京大學出版會.
3. 井上 俊·上野千鶴子 他 (1996). 「家族」の社會學. 岩波書店.
4. 篠原聰子·大橋壽美子·小泉雅生·ライフスタイル研究會 編著 (2002). 変わる家族と変わる住まい <自在家族>のための住まい論.
5. 飯田詠子·藤田みなか·初見學 (2006). シェア居住から見る都市居住の在り方 その1, 2.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6. 小林秀樹 (1988). 領域論による公私文化の研究に向けての方法の検討.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7. 澁谷昌三 (2005). 人と人との快適距離 パーソナル・スペースとは何か. NHKブックス.
8. 高橋鷹志·長澤 泰·西出和彦 (2006). 環境と空間. 朝倉書店.
9. 花里俊廣·西出和彦 他 (1998). 人間環境學-よりよい環境デザインへ. 日本建築學會 編.

접수일(2010. 12. 23)

수정일(1차: 2011. 4. 25, 2차: 2011. 7. 16)

게재확정일(2011. 8. 16)